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

오 의 석(대구가톨릭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지평에 관한 사례 연구이다. 논문에서 살펴본 여섯 작가의 작품과 삶을 통해서 다양한 창작과 사역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가들은 기독교 미술 작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창작의 작업을 보여주면서도 그들이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곧 창작과 전시 활동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사역의 삶을 선택한 작가들이다. 조각가에서 목회자로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가 있는가 하면 화가에서 크리스천 상담가로, 그리고 미술선교사로 사역을 담당하는 작가가 있고 또 공동체를 지향하며 작품과 사역을 감당하는 조각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한 청년 조각가는 결국 해외선교지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술의 가르치는 선교사로 헌신적 삶을 살아가기에 이른다.

이 작가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작가들을 찾아온 말씀에 의해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 후의 작업에서 그 말씀의 세계를 형상으로 담아 옮기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큰 말씀의 세계에 대해 자각하고, 창작과 전시의 행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면서 작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사역적 삶에 주력하거나 아주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헌신된 작가들의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은 미술계와 기독교 미술계에 커다란 손실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손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의 출현으로서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

이 작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 한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미술선교, 미술치유, 미술공동체 사역에 대한 논의와 강조가 한국 기독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그 한계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모색한 사례를 보여 주며 그 사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기독교 미술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크리스천 작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작품 창작과 삶의 일치를 위해 힘쓰는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말씀, 크리스천, 작가, 작품 이미지, 사역적 삶

I. 서 론

한 작가의 작품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삶과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할 때, 작가의 작품과 삶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다. 크리스천 작가의 경우 그가 표현한 작품 이미지가 작가 자신의 고백적인 믿음과 선포적인 삶을 담아내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작가가 삶과 작업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치시키려고 노력할 경우 그러한 표현은 더욱 자연스러운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인으로서의 창작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 교회와 공동체로 부터의 사역적 요청과 화해를 이루고 일치된 삶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창작에 대한 흥미와 열정은 때로는 교회와 공동체로 부터의 사역적 요청과 갈등을 일으키며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창작의 길을 포기하거나, 창작활동을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한 하면서 사역적인 삶에 헌신하는 경우를 보여주기도 한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 작가의 작품 이미지와 작가들의 사역적 삶에 관한 연구로서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답을 몇몇 작가의 삶과 작품 사례에서 찾아보며 다루고 있다. 연구를 통해서 크리스천 작가들의 삶과 작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역적 삶의 실천을 위해서 작품 창작을 포기하고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성찰해 보고자 한다. 믿음의 고백과 삶으로서의 창작을 일치시키려는 작가들의 치열한 추구의 모습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삶과 작업의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미술과 조형창작의 적절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는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의 특성을 다루고 그들의 삶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는 것은 작품과 삶이 이원론적으로 유리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작품의 이미지가 작가들의 현재적 상황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과 계획까지를 예견케 하고 전망하게 하는 것임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작가들의 이러한 선택과 전환이 가지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는 미술계와 문화계에 커다란 손실처럼 여겨질 수 있는 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는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보강하는 좋은 열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기독교미술에 대한 열기와 환경의 변화, 활발한 연구에서 가장 결여된 부분이 있다면 기독교미술 작품과 작가에 대한 연구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와 저술들이 성경과 문화신학, 기독교미술 이론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미술의 방향성과 역할, 원리와 과제 등을 주로 논의하고 그 가치를 환기시키는데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작가와 작품의 구체적인 사례에 접근하고 이해하며 그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한 연구의 성과들을 찾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그 동안 진전되어진 한국 현대 기독교미술의 연구의 방향에 변화를 주면서 그 성과를 더욱 풍성히 하는 의미가 있다.

II 작가의 작품 세계와 사역적 삶의 사례

1.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

〈한사랑〉의 연작들을 보여주었던 조각가 조동제는 수년전 어느 날 미술계를 훌쩍 떠나서 ‘새로운 목양의 삶을 시작했다. 작가의 삶과 신앙, 작품을 지켜 보아온 연구자에게 이같은 선택과 변화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나무를 깎고 돌을 쪼고 쇠를 녹이고 동판에 못을 쳐서 인물을 조형하는 삶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상징과 은유의 조형 형식이 주는 즐거움과 깊이가 있지만 그 것이 오래가지 않는 순간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조각가는 자신의 작품이 다른 이들의 삶에 미치는 변화와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사실 앞에서 흔히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작가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였을 때, 생명이 없는 재료를 만지고 다루는 조각의 일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에게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싶은 바람이 있으며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변화를 이루면서 영혼을 빚어가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다.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빚어가는 목양의 삶은 최고의 예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인생들을 새롭게 조형해 가는 목양은 하나의 예술이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최고의 삶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조동제의 첫 개인전은 작가의 조형적 기초와 지향이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조각가에서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가로 삶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조각가였는데, 그 자유는 위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였으며 자신을 포기함으로 얻은 수확의 열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림1) 한 사랑 9- 이처럼 사랑하사
53×27×77, 나무, 철판, 1991



그림2) 한 사랑 10- 이처럼 사랑하사,
190×30×190, 나무, 철판, 1991

‘내게 있어서 조각의 관심은 삶의 이상추구에 있지 않다. 문제 해결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나 제시에서 출발 되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 안에 있는 자식과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시작되는 세계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내 호흡의 자유와 해방과 부요함에 대한 감각과 환희가 늘 내 마음을 채우며 그 마음으로 나는 나의 형태를 만진다. 그러므로 나의 작업은 문제해결의 관심을 마감시킴으로 비로소 진행된다. 새것에 대한 갈망에서 돌아섬으로 진행되며 내가 주체자 되는 것을 포기함으로 얻는 열매이다 (조동제 개인전 작가의 노트 중에서, 1991)

한 미술평론가는 그의 작품에 대해 ‘화해와 은유를 지향하는 조각’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전통과 현대의 재료와 양식이 그의 작품 안에서 만나고 있는데, 한옥을 지탱했던 헐려진 재목들이 철판의 용접과 동판의 못질에 의해 인물의 형상으로 복원되고 있다. 도판의 작품 <한사랑2>처럼 상호



그림3) 한 사랑2, 70×25×140cm
나무, 동완, 1991

신뢰와 의존을 보여주는 남녀의 인물군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다룬 <한사랑10-이처럼 사랑하사>와 같은 작품이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나타난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한국성과 현대성, 그리고 기독교적 영성의 조화를 확인하게 되며, 그래서 한국 현대 그리스천 미술의 좋은 모범과 전형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조동제가 조각에 손을 놓고 미술계로 떠난 것은 매로 아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조각 안에서 간혀 있을 수 없는 작가였으며 그는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으로 복원하는 종합예술가로 살아 가기를 시작한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의 감독들처럼 허구의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요한 실제의 삶을 만지고 다루는 예술가가 된 것이다. 한 생명의 출생에서부터 성장과 결혼,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인생의 노후와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지켜보며 섬기는 감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아직도 그를 예술가로 대하며 만나는 것이 가능하며, 그가 새롭게 열어가는 목양의 삶을 사랑과 복원의 작품으로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이다. 새목양교회의 개척 예배 주보

에 실린 그의 첫 칼럼은 우리의 기대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든든한 믿음을 준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은 제게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하겠다는 큰 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소원함이 아니라,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예수님 닮은 목사’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의 삶을 다루기에 앞서서 자신의 삶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있다. 작품 <한사랑>의 조각가가 새 목양자로서, 사랑과 복원의 예술가로서 들려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작품으로 빚어 가는 것, 깨어진 형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예술임을 생각한다.

2. 캔버스에 담은 마음의 심연

형상과 색채는 사람의 마음을 담아내게 된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그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림은 마음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미술작품의 치료적 효과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이론에서부터 그 가능성을 찾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수 년 전 작고한 요셉 보이스는 세기 말의 많은 젊은 작가들에게 영웅시 되었던 현대작가로서 미술은 병들고 부패한 사회와 인류를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미술가는 초인적 능력을 지닌 치유 구원의 영매이고 무당과 같은 존재라고 말함으로써 미술과 미술가의 정체성을 과장하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음을 그리는 화가 황지연을 처음 만난 것은 1995년 겨울, 기독교미술연구회의 수련회에서 있었는데, 강의를 위해서 그 곳을 찾은 연구자에게 건넨 작가의 개인전 도록을 통해 그의 그림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캔버스에 오일로 그린 그림들이었지만 오일로 그린 것이 맞는지 묻고 싶을 만큼 그의 그림은 유화 같지 않은 독특함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창밖의 겨울호수에 피어오른 물안개가 색깔을 흠뻑 머금고 있는 듯한 화면에 연구자의 눈은 고정되었는데, 파스텔화를 연상케 하는 그의 그림에서 보는 이의 마음을 품고 어루만지는 위로의 힘이 느껴졌던 것이다. 작가는 긴 설명을 대신하여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깊은 심연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1997년 가을, 기독교학교육동역회가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의 설립의 재정후원을 위해 기획한 VIEW 미술전에 함께 참여하면서 황지연 작품의 실체를 접하게 되었는데, 도록에 기록된 작가의 노트를 통해서 그의 작품이 지닌 치유적 힘의 비밀을 조금은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남겨진 고요함 가운데 눈을 들어 나의 의식과 감정 그 너머의 초월적이며 절대적인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 보자. 생소하리만치 새로운 내 마음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세계와의 만남 안에서 늘 확실한 영감을 기대해도 좋 다는 약속의 안도감이 짙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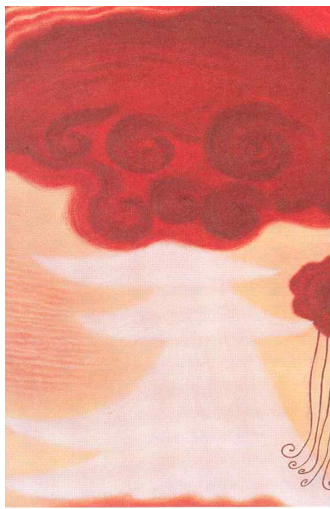


그림4)비움의 기쁨, 116.5×72.5
Oil on Canva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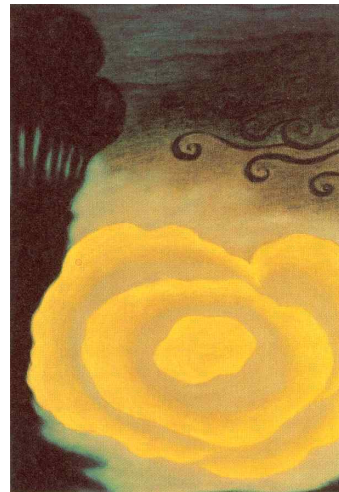


그림5) 밤이 전하는 지혜,
90.5×60.5 Oil on Canvas,
2005

작가가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기까지, 그리고 자유롭게 그 마음의 심연을 화폭에 담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공명과 치유적 힘을 행사하기까지 그의 삶과 화업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명문여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황지연은 실존주의 예술철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곧 삶의 전기가 맞게 된다. 어느 유학생 집회에서 회심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성경공부와 교회의 활동에 열심하는 생활의 변화가 일게 되었는데, 그 때, 갑자기 손발이 잘린 듯 그동안 추구했던 가치와 세계관의 단절로 인한 내면의 공허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그의 방향은 화업의 갈등과 함께 계속되어간다. 그가 다닌 미술학교가 위치해 있던 캘리포니아의 중부 산타바

바라의 해변에서 서양문명의 요지 유럽으로,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으로 그의 사색과 여행은 계속 이어졌지만 실망감만을 더욱 키운 채 고국을 찾게 된다. 결국 그는 7년이 넘는 유학생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서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표현하는 한 사람의 화가로 정착한다. (나의 세계관 뒤집기, 복음과 상황 1998.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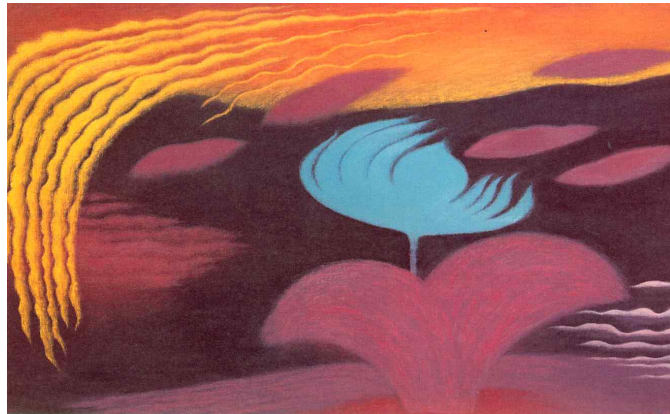


그림6) 그리는 이/ 그리움의 노래 130×166, Oil on Canvas, 2005

수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기독교미술의 연구와 함께 1994년부터 황지연은 상담과 치유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한다. 어쩌면 캔버스에 마음을 투영하고 비춰보는 일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전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인격과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과 도움이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공부의 과정을 밟던 중 그는 “네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의 작품 <내 마음의 왕>은 작가의 이 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작품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은 12년 전에 내게 오셨지만 늘 주변인물로 계셨고 참 내 주가 되지 못한 채 지구 끝이라도 가서 삶의 답을 찾겠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를 지키며 늘 따라다녀 주신 거였다. 바로 그분이 나의 해답이었고 친구였고 참 남편이었으며 영원한 부모였는데...”

위와 같은 고백 이후, 황지연은 참된 자유를 느끼면서 그동안 의존했던 것들로부터 독립한다. 그리고 달려야 할 목표를 갖게 되, 화면 속에서 이루지 못한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우리는 황지연의 삶과 그림의 여정 속에서 미술이 갖는 치유적 힘의 한계를 발견하며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선 작가의 이력 앞에서 한 작가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일하신 분의 역사를 읽을 수 있으며, 장차 작가가 새롭게 내보일 마음의 심연에 대해 기대를 하게 된다. 어쩌면 작가가 그려낼 마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는 캔버스의 틀 안에 담겨지지 않을 만큼 큰 것일 수도 있다는 예감을 가질 수 있다.

3. 말씀의 체현과 증언의 이미지

1)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그린 부흥의 메시지-

평신도 미술선교사 신규인의 작품에 대해서 네 번째 연구의 글을 쓰게 되는데, 이처럼 신규인의 그림을 자주 다루는 것은 작가가 연구자의 가까이에 있고 그의 작품을 쉽게 접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미술에 대한 소명’, ‘찬송화가’, ‘시각적 부흥 사경회’,... 언뜻 보면 그 의미를 알아채기 어려운 독특한 이력과 직함과 미술사역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신규인의 그림에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배어있고 교회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녹아 있다. 그리고 늘 그의 화면에서는 세련미를 찾기 힘든 야성이 묻어나고 있다. 그림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글과 책으로, 그리고 강의와 집회를 통해 거침없이 토해 내는 작가를 보면서 연구자는 ‘기독미술계의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본다.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2007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빠른 개인전의 소식을 전해 왔다. 새해 벽두, 정월의 첫 주부터 대구 서현교회의 문화공간 갤러리 GNI에서 열세 번째 개인전을 가진다. 전시회 리플렛의 표지작품 <사경회>는 특별히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 오는데, 이 그림은 조국교회 부흥의 기점이 된 역사적 사경회의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추위 속에서 눈 덮인 먼 길을 걸어온 한 여인이 장대현 교회 정문에 서있다.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어린 애들 등에 업은 시골 아낙네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1909년, 미국인 선교사 밀러(H. Miller)가 남긴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열흘간의 성경공부를 위해 한 자매는 쌀자루를 이고 300마일을 걸어 왔고 다른 이들은 거기에다 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은 손때 묻은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

기록만으로 실감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을 작가는 생생하게 재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그 때로부터 백년이 지난 오늘, 고도성장과 몰락주의의 폐해 속에서 부흥의 의미마저 변질된 시대를 향해 참된 부흥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림 속의 여인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화려해져 버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듯하다. ‘너희들은 내 모습이 부끄럽나?’

그림을 통해서 정작 부끄러운 것은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된다. ‘Again 1907’을 꿈꾸며 많은 계획과 행사들로 분주한 한국교회에 이 작품은 정작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라는 외침으로 사경회가 열리는 100년 전의 한 교회를 배경으로 성경책을 들고 서있는 여인의 남루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듣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야의 화가 신규인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하는 2007년의 메시지인 것이다.

(2) 말씀이 체현된 화면의 신비

- 구숙현의 로고시즘(Logos-ism) 회화-

대구 전시를 통해서 보여준 구숙현의 회화는 말씀이 형상으로 체현된 로고시즘¹⁾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화면 전체가, 출품작 모두가 철저히 말씀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들이 누리며 펼칠 수 있는 그 많은 자유와 상상의 세계를 접고, 구숙현은 오직 말씀과 복음의 이야기로 화면을 구축해 간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작가가 우리의 이웃으로 살며 작업을 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무엇이 그런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구숙현이 세상의 이목을 끌만한 주제들을 버리고 오직 복음의 이야기에 집착하게 연유가 무엇인지 그의 작업 뒤에 숨어있는 작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① 작가에게 찾아온 말씀

오랜 프랑스 유학생살을 마치고 돌아와 국내외의 전시를 위해 잠시 서울에 체류하던 중에 일어난 격한 풍랑의 사건 속에서 작가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작가를 그를 찾아온 말씀의 은혜는 작가의 삶 전체를 흔들었고, 작가의 그림과 작업까지도 말씀 앞에서는 예외 일 수가 없었으며 결국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주제인 십이지상(十二支像)²⁾ 미련 없이 버리게 되었다. 이미 작가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었지만 작업의 주제는 신앙과 유리되어 대립하고 있던 이원적인 삶과 작업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말씀의 빛이 찾아 올 때, 어둠 속에 있던 모든 미신과 무지의 실상이 드러나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 동안 구숙현의 화면에 자리했던 열두 동물의 형상은 그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때 이 후로 화면은 복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열 번째 개인전으로 열리는 구숙현 성화전(2007. 5. 3 - 6. 8일, 갤러리 GND)에서 우리는 오늘까지 지속된 말씀의 체현이 얼마나 풍성하고 강력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어린양의 보혈, 돌아온 탕자, 오병이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겹세마네의 기도, 소경 바디매오, 포도나무 비유, 베데스다 못가의 기적 등, 그의 모든 작품에서 형상과 이미지로 체현된 말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말씀이 형상을 입을 때

-
- 1) 로고시즘(Logos-ism)은 로고스(logos)¹⁾와 이즘(ism)의 합성어이다. 말씀(Logos)의 체현(體現)이란 관점에서 기독교 미술과 문화를 바라보는 필자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을 형상으로 체현하는 로고시즘은 문자적인 말씀을 시각적으로 전환하는 직설적인 체현에서부터 말씀이 가지는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추상적인 형태와 재료로 담아내는 작업, 그리고 말씀이 요구하는 어떤 행동성을 작업과 전시를 통해 구현하려는 시도 등, 다양한 체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 2) 십이지상은 육십갑자의 아래 단위를 이루는 12개의 요소로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의 동물로 표현된다. 이들은 12방위에 맞추어 몸은 사람으로, 얼굴은 각각의 동물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일찍이 도교의 방위신앙에서 강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말씀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작가들은 기록된 말씀의 이야기에 다시 형상의 옷을 입히게 되는 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작가에 의해 표현된 형상의 이미지가 과연 말씀의 실체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천 작가들에게도 계속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시각적인 형상을 통해 로고스가 가진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로고스를 형상화 하는 것은 로고스의 실체를 왜곡하고 변형하는 위험한 일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하늘의 광명은 성령고, (제 4종 12월 27일 150cm, 마르틴, 2007)
-사건과 대항 작품, 여러 쪽이 모여서 된 작품-

말씀을 형상화하는 작업의 초기에 화가 구숙현에게도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작업의 내용과 작가적 삶의 불일치, 예수의 형상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구숙현은 형상의 작업에만 안주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형상을 사로잡은 말씀에 보다 깊이 다가가기 위해 신학의 수업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작가의 작업에는 보다 많은 자유가 찾아 왔으며, 마침내 말씀을 형상화하는 미술의 사역적 소명을 작가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기에 이른다.

③ 구숙현의 로고시즘, 그 신비와 황홀

구숙현의 그림은 신비로움이 있고, 그의 그림이 함께 전시된 공간 안에는 어떤 황홀함이 있다. 부식된 동판의 저부조를 연상케 하는 회화작품들은 오랜 역사를 견뎌온 보물과 같아 보이는데, 말씀이 그 만큼 보배롭고 소중한 것임을 증언하기 위해 해 작가는 독특한 제작 기법과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한다. 유학시절 서구미술의 역사적 유산으로부터 현대의 매체 표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답사하며 습득해 낸 재료기법이 신앙의 열매로 승화되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세상과 미술계 안에서 말씀을 체현하는 회화가 설 수 있는 자리는 결코 넓은 것이 아니며, 로고시즘 회화에 대해서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좁은 길을 가는 구숙현의 그림에 대한 환호와 갈채가 교회의 문화공간과 기독교미술계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게 되는데, 언젠가 그의 작품들을 루브르나 스미소니언과 같은 저명한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나라가 아닌 하늘나라 미술관에 소장되어서 그 신비와 황홀의 빛을 영원히 비출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대구의 한 교회 갤러리에서 만난 구숙현의 로고시즘 회화에 대해 가져 보는 기대와 소망이랄 수 있다.

4.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적 조형

- 이웅배의 꼬뮈노떼(Communaute) 연작-

조각가는 자신의 키를 넘는 작품을 세울 때나 자신의 품보다 넓게 작품을 벌여 놓을 때 특별한 흥분을 맞는다. 이것은 오랫동안 조각의 설치와 전시의 현장에서 조각가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발견한 사실이다. 조각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그것은 공간점유와 상승에의 욕망이 아닌가 한다. 이 두 가지 욕망은 조각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삶을 몰아붙이는 보편적 근거가 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집과 땅을 넓히고 높이 승진하여 힘을 행사해 보는 것이 세상사는 재미이자 흔히 말하는 성공의 기준인 것이다. 눈으로 보고 세어서 확인하기 힘든 고결한 목표들은 언제나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밀려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세상의 예술이다.

불어로 붙여진 제목 <꼬뮈노떼>, 우리말로 ‘공동체’라는 뜻을 갖는 이웅배의 기둥들은 이 같은 세상의 흐름에 변혁을 시도하는 조형의 한 모델로 우리 앞에 서있다. 그동안 작품의 재료로 꾸준히 철에 집착해 온 이웅배는 1999년 가을에 금산갤러리가 기획하고 (주)아세아밴드에서 후원한 개인전(9월 25일~10월 9일)에 레듀사(reducer)를 용접하여 구축한 기둥의 연작들을 내놓았다. ‘레듀사’는 배관용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품의 한 종류로서 넓고 좁은 직경의 차이를 가진 배관을 연결하는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철재부품이다. 그런데 어떻게 레듀사가 이웅배의 작품속에 선택되고 사용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웅배 작, 공동체, 1998



이웅배 작, 공동체, 2011

흔히 작품은 작가를 말한다고 한다. 이웅배의 작품을 보면서도 우리는 작품과 함께 그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과 상승으로 그 정신이 요약되는 공동체적 지향을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동일하게 발견하기 때문이다. 조각가 이웅배를 잘 아는 이들의 일치된 말은 그에게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에도 그는 많은 사람들과 깊은 사귀를 나눈다. 그의 집 대문은 항상 열려있고 식탁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주위엔 언제나 사람들이 있고 그는 사람들의 필

요에 따라서 다리를 놓고 일을 만든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남는 자와 부족한자, 때로는 개인과 단체, 교회와 세상을 함께 살피서 연결하는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온 작가였기에 레두사가 발견, 선택되고 작품으로 변하여 우리 앞에 제시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가꾸어 온 삶의 모습 처럼 서로를 받쳐주고 세워줌으로써 상승하는 레두사 기둥들은 홀로 외로이 서있기 보다는 몇 개의 무더기로 군집을 이룬다. 위로만 치솟아 오르는 상승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절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작품 속에는 생명의 잔잔한 파동이 있고 철재부품의 표면에서도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유기적인 곡선과 덩어리의 불규칙한 팽창과 이완, 교차와 반복은 생명을 잉태한 여체의 볼륨과 만곡을 연상케 하고 인물 상호간의 교통을 위한 회화적인 몸동작을 떠오르게 한다. 작가가 첫 개인전에서 내보인 작품인 <나무>와 중첩시켜 보면 열려진 하늘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의 수액들이 나무의 마디마디에 맺혀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웅배의 <꼬뫼노떼>는 이 땅의 필요를 주목한 작가의 반응으로 보인다. 연합을 모른 채 위로만 상승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난 고립과 독단의 폐해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서로의 연합만을 강조하면서 무력함과 혼미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웅배의 작품과 전시는 신선한 도전과 자극으로 다가온다. 레두사를 집적한 이웅배의 <꼬뫼노떼>연작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공통의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에 관한 조형적 진술을 들 수 있다.

5. 말씀에 눈 뜬 조각가의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

“눈뜨기 전은 부끄럽고, 자신 없었지만, 눈뜬 후로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보여지면 아주 기쁠 것입니다.” 김수정의 눈뜨기 展 (2002.12.12~18, 갤러리 환)에 기록된 작가의 말이다. 전시장 중앙엔 한 그루 나무가 서 있었고, 입구에는 작품 <구원>이 설치되었고, 한편 벽에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털실로 형상화되었으며, 또 한편에선 고치에서 나온 나비들이 줄지어 벽면을 날고 있었다. 김수정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흔히 졸업작품전이라고 불리는 전시회의 부제는“눈뜨기 전”이었다. 작가는 분명히 자신이 눈뜬 세계와 자신의 눈뜬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했다. 여기에 더하여 작가는 눈을 뜨겠다는 의미를 덧붙인다. 처음 갖는 설치 개인전으로서 자신을 처음 세상에 내보이는 일이 또한 눈뜨기의 한 과정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작가의 눈뜨기는 과거의 일이자 현재 진행이며 또한 미래의 일인 것이다.

그래도 연구자는 작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눈뜨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주위에는 눈을 뜨지 못한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물었을 때, 작가는 1994년의 어느 한 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작가가 더욱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날 이후의 습관적 불안정과 방황의 여정들이었다. 아직은 어린 청년작가인데 어떻게 전시장으로 말씀을 체현하여 들고 나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구자는 그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싶지만 작가는 자신의 작업을 자연스런 일상으로 소개한다. 그만큼 그는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것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

유가 또한 궁금하다. 작가에게 시련이 있었고 그 시련을 통해서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시련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했을 때 그 것은 놀랍게도 삼 년 반 동안 끔찍이 아끼며 키워오던 한 마리 개의 죽음이라는 대답이었다. 마침 그 개의 죽음은 작품으로 그 개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출품한 얼마 후였기 때문에 그 때로부터 마음이 가고 좋아하는 어떤 형상의 제작을 그분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이 체험을 통해서 또 빼앗아 가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때문에 마음가는 대로 작업할 수 없음을 배웠고 이제는 말씀을 작품으로 담아 내는 것만으로도 할 일이 무궁함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말하는 시련, 곧 마음속의 우상과도 같았던 개와의 결별은 그의 작업을 다시 말씀 안에서 세워 가는 전기였던 것이다.

(1) 오홀리압 기법

털실은 포근하고 따뜻한 속성을 가진다. 작가 개인에게는 불완전한 자신을 감싸는 보호와 치유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작가의 정서에 부합하며 다루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수정은 털실을 이용한 자신의 작업을 오홀리압 기법이라 명명하며, 이 기법이 조각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이 기법에 대한 작가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아이덴티티를 고집한다. 오홀리압은 브사렐을 도와서 성막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역을 도왔던 사람으로 그의 작업 가운데는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이 포함되어 있다(출31). 김수정은 뜨개질 솜씨가 좋았던 어머니와 성경 속의 인물 오홀리압이 자신의 작업을 있게 한 기초라고 말한다. 자신이 오홀리압의 후예라는 생각을 하며 작업의 실마리를 조각 역사의 거장과 현대의 유행에서 찾지 아니하고 성경과 가정의 어른들로부터 발견한 그의 착안은 매우 특별하다.

(2) 큰 명제, 좁은 길

김수정의 작품 명제는 크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에 관한 것들이다. 이렇게 비중 있는 명제들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작가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말씀은 그 어떤 형상 안에서 제한될 수 없고 간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김수정의 작품 해석은 전혀 무겁지 않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작품 <영생>에 나타난 무수한 털실공은 사람의 영혼을 나타내는 눈동자, 혹은 거짓일 수 없는 순수한 가슴의 표현이다. 거기에 수놓아진 둥근 무늬들은 지식의 나무 표면에 있는 무늬가 입체화 된 것으로 전시된 작품들은 이처럼 서로 상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작가가 큰 명제들을 소화해 내는 통로 또한 복잡하지 않다. 작가의 상상력이 촉발되는 재료와 형상의 접점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면이 있다. 그로 인해서 내용의 전달과 소통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자기 고백적 차원에 머문다 해도 믿음의 작업으로서 가지는 그 의미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말씀, 구원, 영생과 같은 거대한 명제에 도전할 수 있는 이가 세상에 많

지 않기 때문이다.

덜 부끄러운 전시를 하는 것이 소박한 바람이었다고 말하는 작가는 전시란 언제나 부끄러운 것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즐겨 사용한 설치작업은 준비를 하면서도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그렇지만 이번 전시작품의 설치를 끝내고 현장에 섰을 때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임을 확인했으며 그것이 은혜였다고 작가는 회상한다.

그러나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전시장을 많이 찾지 않는다는 사실에 적잖은 실망도 있었다고 하니 첫 개인전을 통해서 예술의 소외와 작가의 고독을 깨우칠 수 있음도 작가에게는 눈을 떠가는 한 과정일 것이다. “작가의 눈은 정신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물었을 때 세 마디로 답을 듣는다. “유명해지지 말자”, “좋아서 하자”, “말씀의 표현을 계속하자”. 작가의 대답에서 좁은 길로 들어선 한 작가의 위치를 확인한다. 시대를 역행하며 살아가려는 믿음의 작가가 가진 비전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눈뜸이 될 수 있다

첫 개인전을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각가 김수정은 말씀 안에서 새로운 눈뜸을 경험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발견한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였고 작가는 결국 가족과 함께 해외선교지의 한 유치원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을 담당하게 된다. 작가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변화는 바로 말씀에 대한 새로운 눈뜸과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한 청년조각가의 작품과 사역적 삶은 증언하고 있다.

III. 요약 및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여섯 작가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다양한 사역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조각가에서 목회자로 삶의 전환을 이룬 작가가 있는가 하면 화가에서 크리스천 상담가로, 그리고 미술선교사로 사역을 담당하는 작가가 있고 또 공동체를 지향하며 작품과 사역을 감당하는 조각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한 청년 조각가는 결국 해외선교지에서 어린이들에게 미술의 가르치는 선교사로 헌신적 삶을 살아가기에 이른다. 이 작가들의 삶에서 공통적인 특성은 작가들을 찾아온 말씀에 의해 그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그 후의 작업에서 그 말씀의 세계를 형상으로 담아 옮기려는 노력과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들이 보여준 작품 이미지는 예외없이 장차 변화되어질 삶의 모습을 예견하게 해 주고 있음 확인한다. 한 사랑의 연작을 보여준 조각가 조동제는 '한 사랑'이라는 커다란 주제 안에서 복음과 십자가 사건을 시각이미지로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복음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삶과 열정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동제 작가의 작품은 전통 가옥의 목재를 활용한 한국적 재료에 현대적인 꼴자주 접합의 기법으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인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성과 전통성, 현대성, 기독교 정신을 통합하는 한국 현대 기독교 미술의 진수를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에 녹아있는 말씀과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작가를 더 이상 형상을 다루는 작가로 머물게 하지 않고 사역적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 조각가에서 인간의 삶과 영혼을 다루는 사랑과 복원의 종합예술가로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그리는 화가 황지연은 결국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상담자의 삶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이미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있어서 언어보다도 자유스러운 매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변화와 치유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지는 언어적인 말씀만큼 사람을 설득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켜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상호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황지연의 그림이 가지는 치유적인 힘에 높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작가의 치유적 관심과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작가의 장래의 삶을 예견해 해주는 것으로 가치를 가진다. 작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절감했으리라 생각되며 그는 결국 심리학과 상담학을 전공하고 크리스천 상담자의 길에 들어서서 오랜시간 심층심리적 치료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삶을 주된 주제로 다루던 화가 신규인은 한 단체로부터 미술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미술사역과 강의, 저술활동을 병행하다가 결국은 목회의 사역을 준비하여 시작한다. 또한 십장생 등 한국의 전통적인 주제를 버리고 오직 말씀이 체현된 화면으로 로고시즘 미술의 전형을 보여주는 화가 구숙현 역시 신학의 수업을 마친 후 미술선교사로서의 사역적 삶에 헌신하게 된다.

연합과 상승의 공동체적 조형을 <꼬미노페> 연작 속에서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조각가 이용배는 단순한 창작과 전시를 함께 수행하는 단체와 그룹의 성격을 넘어서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작업 공동체 사역을 통해 청년 작가들을 품고 교육과 창작을 병행하는 사역적 삶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말씀에 눈을 뜨므로 인해 작업과 창작의 전기를 맞이한 청년 조각가 김수정은 결국 말씀 안에 있는 미션 퍼스펙티브(Mission Perspective)에 눈을 뜨게 되면서 수년 전 열방의 품고 해외의 한 선교지로 가족과 함께 나아가서 아동미술 교육을 통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미술선교사의 삶을 시작한다.

이상의 작가들은 모두 예외없이 형상과 이미지의 세계 안에 자족하며 머물기 보다는 말씀의 명령과 도전에 반응하며, 창작과 전시의 행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 인식하면서 직접적인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하거나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다양한 사역적 삶의 가능성을 열어 감으로서 그 지평을 넓히고 있으며 작가들의 앞선 작품은 사역의 방향성을 넉넉히 예견해 할 만큼 이미지와 사역적 삶의 방향은 깊은 상관성을 보여준다.

작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미술사역의 가능성과 필요성, 그 한계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술선교, 미술치유, 미술공동체 사역에 대한 논의와 강조가 한국 기독교 미술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논문에서 다루는 작가들은 그 한계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모색한 사례를 보여 주며 그 사역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헌신된 작가들의 사역적 삶으로의 전환은 미술계와 기독교미술계에 커다란 손실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결코 손실이 아니며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의 출현으로서 강화와 보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미술인으로서의 소명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 사이에서 크리스천 작가들이 가지는 다양한 활동과 사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작품 창작과 삶의 일치를 위해 힘쓰는 많은 크리스천 작가들의 연구와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작가들의 사례는 작품의 창작과 사역적 삶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작가들로 하여금 형상 작업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와 함께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균형적인 시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작품 속의 사례 작가들의 삶과 작업이 형상

세계 안에서 자족하며 안주하기 보다는 제자로서의 사역적 부르심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독교미술 작가들을 자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가나아트 편집부. 1993. *오늘의 한국미술-30인의 작가론*-서울:가나아트.
- 김병중 외. 1996. *기독교와 미술*.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영한. 1992. *한국기독교 문화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 서성록. 2003. *Art & Christ, 꿈꾸는 손-한국의 크리스천 미술가들*. 서울:미술사랑.
- 서철원. 1992. *기독교 문화관*. 서울:충신대학교 출판부.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1987. *한국기독교와 예술*. 서울: 도서출판 풍만.
- 신규인. 2005. *농부이신 하나님*, 도서출판 셋, 대구
- 엄태정. 2004. *조각과 사유*. 서울:도서출판 창미.
- 오의석. 2006. *예수 안에서 본 미술*. 서울: 흥성사.
- 오의석. 2003. *말씀과 형상(LOGOS & IMAGE)*. 서울 :진흥아트홀.
- 오의석. 1995. 부활의 조형-산업오브제와 고철에 의한 조각 작품 제작 연구 *산업미술*, no.5. 대구:효성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 오의석. 1993. 현대 기독교 미술과 세계관. *통합연구* 통권 18호. 대구: CUP.
- 오의석. 1992. 성경적 조형관. *통합연구* 통권 14호. 대구: 통합연구학회.
- 오의석. 2001. 조각문화의 이해를 위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1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오의석. 2000. 한국 현대조각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양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제10집*. 한국미술교육학회.
- 오의석, 2010, 한국 현대 로고시즘 미술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호, 기독교세계관학술교육동역회
- 윤영화. 2003. *掣과 현대미술*. 부산: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은주. 2007. 말씀의 체현으로서 오의석의 조각 이미지 연구. *통합연구* 통권 47호. 서울:통합연구학회.
- 이창립. 2003. *신·인간·가족*. 서울:가톨릭출판사.
- 조동제, 1991, 조각 개인전 도록, 제3객러리, 서울
- 정관모. 1997. *정관모 1977-1997*. 제주:제주조각공원 신천지 미술관.
-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론분과. 2006. *Pro Rege-영광스런 극장 안에서*. 서울: 예서원.
- 황지연, 2005, 구름 속을 거닐다, 빛 갤러리 초대전 도록, 서울
- 홍순모. 1995. *ART VIVANT, 홍순모*. 서울:시공사.
- Carl Gustav Jung 외. 이윤기 옮김. *인간과 상징*. 서울:열린책들.
- Gerardus van der Leeuw, 尹以欽 옮김. *종교와 예술*. 서울:열화당.
- Francis A. Schaeffer, 김진선 옮김. 2002. *예술과 성경*. 서울:IVP.
- Read Herbert., 이희숙 옮김. 2001. *조각이란 무엇인가*. 서울:열화당.
- Rookmaaker H. R., 김현수 옮김. 2002. *예술과 그리스도인*. 서울: IVP.

- Rookmaaker, H. R., 김유리 옮김. 1993. *현대 예술과 문화의 죽음*. 서울: IVP.
- Veith jr. Gene Edward. 오현미 옮김. 1994. *그리스도인에게 예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서울:나침판.
- Weber, Robert E. 이승구 옮김. 1989. *기독교 문화관*, 서울:엠마오.
- Apostolos-capadona, Diane. 1992. *Art, Creativity, and Sacred*, Crossroad.
- Begbie, Jeremy. 1991. *Voicing Creation's Praise*, T&T Clark.
- Dyrness, W.A. 1979. *Christian Art in Asia*, Editions Rodopi N.V.
- Ferguson, George. 1954. *Signs & Symbols in Christian Art*, Oxford University Press.
- Krauss Rosalind E. 1981. *Passages in Modern Sculpture*. MIT Press.
- Niebuhr, H Richard. 1951. *Christ and Culture*, Haper Torchbooks.
- Seerveld, Calvin. 1980. *Rainbows for the Fallen World*, Toronto Tuppence Prees.
- Veith, Jr. G. E. 1991. *State of the Arts*, Crossway Books.
- Wilson, Jhon. *One of the Rechest Gifts*, The Handsel Press.
- Wolterstorff Nicolas. 1987. *Art in Action*, Grand Rapids:Edermans.